



〈제네시스 쿠페 3.8 터보〉

최고출력 303마력  
최대토크 36.8kg·m  
최고속력 240km/h



〈BMW M3〉

최고출력 420마력  
최대토크 40.8kg·m  
최고속력 250km/h



〈인피니티 G37 쿠페〉

최고출력 333마력  
최대토크 37kg·m  
최고속력 240km/h

## ‘꿈의 스피드’ 쿠페가 몰려온다

자동차업계가 날렵한 디자인에 고성능 엔진으로 무장한 ‘쿠페(Coupe)’ 모델 출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2030 고객층을 중심으로 스포츠 세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꿈의 차’로 불리는 쿠페를 속속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차가 지난 13일 ‘제네시스 쿠페’를 출시함에 따라 그동안 수입차 전유물로 인식돼왔던 쿠페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현대차 제네시스 쿠페 시속 100km 도달속도 6·5초

페라리 등 적용 첨단 브레이크 장착 마니아들 열광

BMW·인피니티 등 수입차 브랜드도 신차 출시 잇따라

◇국산 쿠페의 짧은 진화=국산 쿠페의 역사는 20년이 채 안될 정도로 짧다.

현대차 ‘스쿠프’에서 ‘티뷰론’과 ‘투스카니’에 이르는 시리즈가 국내 마니아들의 감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지만, 여전히 쿠페 시장은 수입차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쿠페는 판매량이 많은 모델은 아니다. 가격이 비싸고, 문이 대부분 두 개 밖에 없는 데다 뒷좌석도 좁아 실용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더 좋은 쿠페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개발비를 쏟아부었다고 한다. 쿠페는 그 회사의 첨단 기술력과 디자인 능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쿠페는 그 회사가 만드는 차량중 가장 빠른

모델이다. 자동차 마니아층을 상대로 하는 만큼 성능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다.

수입차 브랜드들의 자존심 싸움이 쿠페 차종에서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수입 쿠페에 도전장=현대차는 최근 ‘제네시스 쿠페’를 출시함으로써 수입차 업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대차는 또 향후 쿠페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BMW ‘M3’와 인피니티 ‘G37’ 등 수입차 브랜드가 독재하고 있는 국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제네시스 쿠페’는 자사의 ‘제네시스’와 플랫폼을 같이 쓰는 현대차 최초의 후륜구동형 쿠페다. ‘200터보’와 ‘380GT’ 두 가지 모델로, ‘200터보’는 최고출력 210마력, ‘380

GT’는 최고출력 303마력에 이른다.

‘380GT’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데 6.5초 밖에 걸리지 않으며, 최고속력은 시속 240km에 이른다.

현대차는 또 ‘페라리’ 등 슈퍼카에 주로 적용되는 이탈리아 브레이크 시스템 메이커인 브렘보사의 브레이크 등 최상의 전문 부품을 채택해 성능을 높였다.

18인치, 19인치의 대구경 휠이나 곡선길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차동제한장치(LSD)’ 등도 눈에 띈다.

앞 타이어 폭은 225mm, 뒷타이어 폭은 245mm로 국내 최초로 전후 타이어 폭에도 차이를 줬다. 후륜구동인 만큼 뒤타이어를 더 폭넓게 해 주행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기아차도 내년에 최초의 쿠페인 ‘포르테 쿠페’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차는 자사의 준중형 세단인 ‘포르테’를 기반

으로 1,600cc급 세타II 엔진이 탑재된다. 지난 3월 열린 뉴욕 모터쇼에서 기아차가 공개한 콘셉트카 ‘KOUU’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인피니티 등 수입차업계 경쟁도 가열=BMW의 고성능 쿠페인 ‘M3’와 ‘M6’, 인피니티의 쿠페 ‘G37’까지 수입차 브랜드의 신차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BMW의 ‘M3 쿠페’는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는 ‘꿈의 차’로 불린다. 3,999cc 8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최고출력 420마력에 최고속도는 시속 250km에 달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은 단 4.6초. 7단 더블클러치 변속기, 공기 역학적 디자인 등 최고의 레이싱 경주인 F1의 기술들이 대거 적용됐다.

‘M6’는 5,000cc의 10기통 엔진을 채용해 최대출력이 507마력에 이르며, 최고속도는 시속 250km다.

인피니티가 최근 출시한 2009년형 ‘G37’ 쿠페는 3,700cc 엔진에 최고 출력 333마력의 성능을 갖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쿠페=2인승 또는 4인승 좌석을 갖추고 있으면서 뒷좌석 부분의 천장이 낮거나 경사져 있는 스타일의 차량을 말한다.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낮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문은 좌우 2개가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세단의 편의성을 접목한 4도어 쿠페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대구북부동성로) (062) 227-9940  
충장점 (금남공원앞) (062) 227-9970

**등대바다**

수산물 전문점

062-671-1199

**아이엘리시아**

www.eyeliasia.com

062) 671-1199